

*경배와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내 마음 다해 주님의 마음 있는 곳/나의 맘 받으소서	다같이
대표기도		하지수
*성경봉독	히 10:19-23	이령희
말씀	믿음을 살아내기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삶의 예배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안혜진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안내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삶의 예배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러지는 예배

믿음을 살아내기 (히 10:19-23)

19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20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21 또한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22 우리가 죄악 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3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이 평생에 걸쳐 풀어야 할 숙명과 같은 과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순간적인 사건입니다만, 믿음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은 평생 걸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 일상이, 내가 속한 세계가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개념을 다소 치우치게 이해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먼저, 믿음을 “교회생활” 로만 한정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믿음생활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점점 더 자기 삶을 교회생활로만 채워갑니다. 두번째는,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살고, 직장에서는 세상논리로 사는 겁니다. 반면, 직장생활의 목적 자체를 복음전파로만 생각해서, 다소 무리하게 전도에만 열정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생활도, 전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러한 관점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데, 이는 내가 하는 직업, 일에 대한 영적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일’을 주시고, 그것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때부터 아담이 할 일을 남겨놓았고, 그가 그 일들을 아름답게 완성하길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일을 통해서 우리 삶의 필요도 공급해 주십니다. 앞으로 8월 한 달 동안 일과 신앙의 문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주제로 “믿음을 살아낸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을 살아내는 삶의 첫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인도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때부터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십니다. 그 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직접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은 불확실성과 모호함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너무나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성공주의와 조급함입니다. 성공주의는 인생이 잘되고 계획대로 잘 풀리는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지만, 인생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공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본다면 많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를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성숙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조급함” 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분의 때는 우리의 시간개념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믿고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생각한 때보다 늦어진다고 조급해하거나 지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의 특징은 ‘매일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삶’을 뜻합니다. 믿음을 인생의 큰 일들에만 적용하다보면 자칫 소소해 보이는 삶은 놓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신앙인은 하루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 하루 하루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다” 라는 것과, “오늘이 내 사역지오 영적 전쟁터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 6:34)

여러분의 오늘은 일주일 중 5일은 직장에서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일터의 삶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일에서 성경적 가치대로 살고, 신앙인답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을 살아내는’ 기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을 적용해야 할 지를 놓고 매일 매일 기도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10장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런 위대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한 첫번째가 “확신에 찬 믿음” 입니다. 이는 문맥의 정황상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으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부도덕하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관행들을 겪게 된다면,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면, 그 사회에 있는 한 그것이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있게 외칩니다. (불의 한 소작농 비유)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성경의 가치로 세상의 논리와 싸울 때, 우리가 무모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세상의 힘에 압도되어서 주눅들거나 혹은 회피하지만 말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가치를 자신있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선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참된 마음” 입니다. ‘참된’의 원어적 뜻은 “진실된, 진정한, 구부러지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이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 논리로만 일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초월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골 3:23) 또한, 기독교인들은 직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일은 단순히 생계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일은 우리의 마음자세가 달라집니다. 일에서 의미를 찾고, 보람도 느끼고, 일의 즐거움도 즐기게 됩니다. 더 완전하게 일을 하기 위해 더더욱 노력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 될 때, 오히려 세상조차 우리를 더욱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주실 영원하신 승리를 바라보며, 하루 하루의 삶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짙맛내는 크리스찬 되시길 축복합니다.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1.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어느 영역까지 인도한다고 생각하셨나요? 큰 일들 위주로만이었나요 혹은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까지도 인도한다고 생각하셨나요?
2. 내가 겪은 직장에서의 부정함과 부도덕함의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그 때 나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다시 비슷한 일을 당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지 원하는 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3.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일 (직장 혹은 학업)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실제 삶에선 이런 가치가 잘 느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일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회원은 QR코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SCAN ME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훈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환영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교회 지침은 마스크가 옵션이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새가족 환영회

7월 24일(주일) 청년 예배 후

2022년 수련회

기간 : 9월 2일(금)~4일(주일)
장소 : Camp Buckner (3835 FM 2342, Burnet, TX 78611)
강사 : 왕용민 선교사님 (International Mission Board)
주제: 다시금 교회로! Back to Ecclesia!
표어: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세움받고! 교회로 살아가자!"

KM-EM 합동 여름 아웃팅

일시 : 8월 20일 (토) 2시 출발
장소 : Natural Bridge Caverns (동굴탐험 & 바비큐)
(26495 Natural Bridge Caverns Rd, San Antonio, TX 78266)
구글 폼을 통한 선착순 신청

토요한국학교 교사모집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포스터를 참조 (사레비 지급)
문의: 김효진 집사 (hellozini@gmail.com)

문서선교부 광고

출판 디자이너로 봉사하실 분 구합니다
간증문이나, 시, 수필, 독후감 등의 원고 접수중
문의: 오선주 집사 (kingkids780@hotmail.com)

일대일 제자 양육 동반자반 모집

양육기간 : 총 16주

목회자 동정

김상범 목사 : 여름휴가 (7월 25일~31일)

환송

김승원 자매

새가족생분자 등록 카드
(교회 웹사이트 청년부 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SCAN ME

PSALM

예배/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제 50권 29호

JUL 24
2022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안혜진

anhyejin0714@gmail.com

새가족 팀장

하지수

jisujeon2015@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512 454 1727 / fax -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AKPC 청년부 | www.facebook.com/groups/akpc.psalm



@akpc_psalm | www.instagram.com/akpc_psalm